

# 몰려드는 난민 ... 올해 신청자 1만 8000명 넘을 듯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올해 상반기에만 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자흐스탄, 인도, 러시아 등의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최근 예멘인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에 집단 입국한 여파로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가 급증세를 보였다.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취업설명회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예멘 난민들

19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는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통계를 공개했다. 올해 1~5월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37명에 비해 132%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한 해 동안 1만 8,000명이 난민 신청을 하고 3년 안에 누적 난민 신청자가 12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분포는 올해 상반기 들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1259명), 인도(656명), 이집트(630명), 중국(609명) 출신의 난민 신청도 여전했지만 러시아(654명), 예멘(552명) 출신의 신청이 부쩍 늘었다.

난민법 제정으로 난민 신청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2013년 1,574명이었던 신청자 수는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지난해 9,942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년 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난민의 처우와 개선을 위한 난민법을 제정했으며 다음해인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2015년 지진과 내전으로 피해를 본 뒤 말레이시아에 머물다 최근 제주로 대거 유입된 예멘 난민들처럼, 자국을 떠난 뒤 주변 국가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를 경유해 한국으로 오는 난민이 늘고 있다.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은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된 신청자는 4만 470명이다. 파키스탄(47,40명), 중국(4,253명), 이집트(3,874명), 카자흐스탄(3,069명), 나이지리아(2,031명), 인도(1,935명), 방글라데시(1,745명) 등 아시아 지역에서

현재까지 난민 신청자 중 절반가량인 2만 361명이 난민 심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가 난민 신분을 인정한 경우는 839명(0.041%)에 그쳤다. 난민 지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추방하지 않고 한국 내 취업 등을 허용하는 인도적 체류자 수는 1,540명(0.076%)으로 난민 인정자 수의 1.8배에 이른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8월 중순 개소 추진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8월 중순 개소될 것으로 보인다.

돼 지난 19일부터 물빠기 등 보수 작업을 실시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개보수 작업을 진행해 8월 중순 이전에 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연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21일 서울의 모 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조찬강연에서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장소와 관련해 "종합지원센터 바로 앞에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가 있다."며 "개보수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남북 간에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연락사무소가 문을 열면 언제라도 남북 당국자 간에 신속한 대면 협의가 가능해져 남북 교류·협력의 '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운영되는 남북 간 협의 채널인 판문점 직통전화와 팩스, 군 통신선, 국가정보원-통일전선부 채널, 정상 간 핫라인 등이 모두 통신 채널이라는 점에서 상시 대면 협의는 남북 간 소통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천 차관은 또 "남북이 같이 상주하며 같은 공간에서 여러 현안을 심층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제도와 틀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면 남북관계가 또 한 번 발전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해성 차관은 "남북이 같이 상주하며 같은 공간에서 여러 현안을 심층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제도와 틀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면 남북관계가 또 한 번 발전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이름이 변경된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는 2005년 개성공단 내에 설치됐다. 해당 건물은 4층으로 2층에 남측, 4층에 북측 당국자가 10여명씩 상주했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 후 폐쇄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남북 간 긴밀한 협의와 민간 교류·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개성에 설치키로 했다.

이 건물은 지난 8일 남북 당국자들의 합동 현장점검 결과 지하층 침수와 벽면 누수, 유리 파손 등이 발견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 빅토리 바디샵

##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 ✓ 최신 프레임 머신에 의한
- ✓ 정확한 프레임 교정
- ✓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 ✓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 ✓ Towing & Rent Car 알선
- ✓ FREE ESTIMATE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